|  |
| --- |
| **엠바고 2025년 9월 25일 (목) 15:00(KST) 까지** |
| **보도자료**2025.09.25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미디어 문의:장유리 팀장 l E: yuri.jang@ecck.or.kr l T: 02 6261 2715 |

**ECCK, 연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5’ 발표**

**2025년 9월 25일, 서울**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5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9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ECCK 산업별 위원회와 주제별 포럼 활동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며, 백서는 모든 위원회 및 포럼별 안건을 망라하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15 개 위원회와 2개 포럼에서 70개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항공 및 방위, 에너지 및 환경, 식품, 헬스케어, 자동차, 주류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시작을 알리며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투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경제통상부문 공사 참사관은 유럽과 한국 간 오랜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도 개방성·지속가능성·규범 기반 협력을 통해 양측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ECCK 총장은 이번 백서가 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이 함께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프랑수아 피올레(François Piolet)** ECCK 항공 및 방위 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과 한국은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절충교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상호 신뢰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 생태계가 글로벌 공급망과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함께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백서의 에너지∙환경 부분에는 실제 해상풍력 사업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이미 해상풍력과 깊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보유한 한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융합되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일자리 및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핵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카소(Thomas Caso)**는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천연향료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와 식품 산업 모두에 혜택을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또한, 해외 식품 제조시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시 활용되는 점검 기준의 영문본 제공과 점검 결과의 구체적 공유 등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안나 마리아 보이(Ana-Maria Boie)**는 “유럽 보건의료 산업은 한국에서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접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혁신의 정당한 가치 평가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접근을 가속화하고, 가격 산정 체계를 현대화하며, 위험분담제도를 개편하여 환자들이 혁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이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의 우선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형벌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사처벌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는 적절한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정부 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프란츠 호튼 (Frantz Hotton)** 주류 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 규제가 수입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배제하고 종가세와 결합되면서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 직구를 통한 세금 회피와 정책 일관성 결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주류 판매자가 공정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입 주류 업계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과 투명한 소비자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들이 언급한 안건들을 포함 전체 70개의 안건 중 20건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제기된 사안으로, 일부는 수년에 걸쳐 꾸준히 건의돼 온 내용이며, 18건은 과거에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된 바 있는 사안들로, 보다 완결성 있는 제도와 규정으로 정비되기를 바라는 업계의 후속 제안이다. 32건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안건들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들이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CCK 백서 2025열람 링크**

[**Category: White Paper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https://ecck.or.kr/publications/white-paper/)

(끝)

**ECCK 백서 2025에 대하여**

올해 ECCK 백서는 총 17 개 산업별분야(항공 및 방위,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디지털, 에너지 및 환경,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인사 및 준법,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해양산업, 지속가능성, 조세)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70 개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에서 편집 및 제작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2012년 설립된 협회이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 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350여 개 이상의 유럽 및 다국적 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수는 11 만여명에 달한다.